**존 오스왈트 박사, 이사야, 세션 25, 이사야. 52-53**

**© 2024 존 오스왈트와 테드 힐데브란트**

이것은 이사야서에 대한 그의 가르침에서 Dr. John Oswalt입니다. 이것은 이사야서 52장과 53장, 25회기입니다.

좋은 저녁이에요. 이런 밤에 의로운 남은 자들이 누구인지 알게 되실 것입니다. 축하해요. 만나서 반가워. 폭우를 견뎌주셔서 감사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는 옛 노래를 기억합니다. 축복의 소나기가 내릴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백성에게 축복을 부어주시는 것이 당신의 성품이고 본성임을 감사드립니다. 과분하지만 마음의 선함에서 나오는 축복입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는 당연하게 여기는 많은 축복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든 그것을 얻었거나 받을 자격이 있다고 가정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원할 때 그 자리에 없으면 우리는 몸을 굽히게 됩니다.

오 주님,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오늘 저녁 우리는 영적으로, 감정적으로, 재정적으로, 기타 여러 가지 방법으로 깊은 물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정말로 그들에게 당신의 축복을 부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적이 그들을 쓰러뜨릴 때 그들이 설 수 있게 해주세요. 오 주님, 적들이 실제로 그들에게서 모든 지원을 빼앗아 갈 때에도 그들이 번영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신 이여, 감사합니다.

그것이 당신의 본성이고 성격이라는 점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당신을 찬양하고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 저녁 우리 앞에 놓인 이 놀라운 경전 구절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당신께서 우리가 여기에 있는 깊이 중 적어도 일부를 측량하고 우리를 위해 여기에 있는 부를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오, 영광을 받으소서, 오 주님. 당신의 아름다움과 보살핌의 경이로움 속에서 당신을 뵙게 해주세요. 감사하겠습니다. 당신의 이름으로, 아멘.

지난번에 우리는 49장부터 51장까지를 보았고 그 장들에서 구원의 언어가 사용되었지만 바벨론은 언급되지 않았음을 보았습니다. 해결해야 할 또 다른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는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입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것도 하나인데 어떻게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습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약속된 주님의 종이 됩니까? 이들이 하나님의 증거로 정해져 있으므로 여기서는 그 문제를 다루겠습니다. 우리는 49장 1절부터 종의 두 번째 계시, 대문자 S로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계시는 42장에 있었지만 사람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잊으셨다고 말했습니다. 당신은 우리와 끝났어.

당신은 이것과 더 이상 관련이 없으며 하나님은 항의하십니다. 나는 당신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대감이 커지는 것을 볼 수 있으며 여기 52장 1절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을 51장 9절과 비교하십시오.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좋아요.

51 9에서 깨어나라는 말을 듣는 사람, 깨어나라는 말을 듣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주님, 주님의 팔이십니다. 주님의 팔을 깨우소서. 지금은 우리에게 너희의 힘이 필요한 때인데 하나님은 여기서 누가 깨어나야 하느냐고 말씀하신다. 예루살렘은 깨어나야 합니다.

당신은 일어났습니다. 예루살렘아, 혼인 예복을 입으라. 따라서 이 기대의 메모는 준비하세요, 준비하세요, 준비하세요입니다.

그런 다음 52장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이 무엇을 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먼지를 털어내고 일어나라 뭐라구요? 앉으세요, 왕좌에 앉으세요. 이제 그것을 47과 비교해 보세요. 그것은 정반대죠, 그렇죠? 왕좌에서 내려와 먼지 속에 앉으세요.

그러면 이 두 가지 요점은 이사야의 주요 주제 중 하나를 어떻게 표현합니까? 바벨론은 자신에게 무슨 짓을 했나요? 네, 그게 최종 결과였습니다. 그 전에 그녀는 무엇을 했나요? 그녀는 자신을 높였습니다. 자신을 높이면 어떻게 됩니까? 당신은 발에 총을 쏘거나 이사야의 말을 빌리면 결국 먼지 속에 앉게 됩니다.

하나님을 위해 자발적으로 흙 속에 앉는 것을 받아들인다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그는 당신을 들어 올립니다. 이것이 책 전체를 관통하는 주제입니다. 자존심이 당신을 모욕할 것이다.

하나님을 신뢰하면 당신은 높아질 것입니다. 실례합니다. 기억.

당신은 이사야서 연구에 관해 그 외에는 별로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 균형 잡힌 주제를 기억하십시오. 자존심이 당신을 모욕할 것이다.

하나님을 신뢰하면 당신을 높여줄 것입니다. 3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그들은 무슨 말을하는거야? 하나님은 왜 자기 백성을 팔았는가? 그는 그로부터 얼마를 얻었습니까? 아무것도, 아무것도.

지난번에 우리가 이야기한 것, 오 하나님, 당신이 우리와 이혼하셨거나 어머니 시온과 이혼하셨기 때문에 그녀를 다시 돌이킬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네 어머니의 이혼 증서가 어디 있느냐고 말씀하셨다. 아니요, 제가 그녀를 멀리 보냈을지는 모르지만 법적으로나 공식적으로 그녀와 이혼한 것은 아닙니다. 맙소사, 당신은 우리를 당신의 채권자들에게 팔아야 했어요.

그 채권자는 누구입니까? 아니요, 제가 통제할 수 없는 어떤 이유로 귀하를 강제로 팔도록 강요받은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지만, 만약 그가 그것을 팔 필요가 없었다면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는 아무것도 없이 그것들을 다시 가져갈 수 있습니다. 그는 누구에게도 돈을 지불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는 그것들을 전달할 수 있습니다.

예. 나는 조금 혼란스러워요. 하나님은 왜 자기 백성을 팔았는가? 오히려 그가 그것들을 팔지 않았지만 시장에 나오도록 허락한 것 같지 않나요? 그는 그것들을 팔지는 않았지만 시장에 내놓는 것을 허용했습니다. 예, 제 말은, 그것은 은유적인 언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미지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당신이 우리를 팔아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그것을 도울 수 없었다. 그러므로 우리를 다시 데려오려면 누군가에게 많은 돈을 쏟아부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내가 너를 팔아서 아무것도 얻지 못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는 당신을 다시 사주기 위해 누구에게도 돈을 지불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완전하지 않다는 이미지입니다.

그것은 비유와 같지만 내가 이것을 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제 나는 당신이 6절을 보기를 원합니다. “내가 너를 값없이 팔았노라.” 나는 아무것도 당신을 다시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 백성은 내 이름을 알게 될 것이다. 그게 무슨 뜻이에요? 그 전에는 여호와라는 이름을 알지 못하였느냐? 물론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성격, 성격, 그들은 내가 어떤 신인지 알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머리로 알고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신다면, 제가 이전에 여러 번 말했듯이, 히브리어에서 '안다'는 개념은 경험을 통해 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내 성격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구절은 어떻습니까? 그들은 말하는 사람이 바로 나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나 여기있어. 그게 무슨 뜻이에요? 괜찮은.

좋아요. 좋아요. 그들은 그를 그들의 아버지로 알게 될 것입니다.

음 흠. 그들은 그를 진정한 위대함으로 알게 될 것입니다. 음 흠.

음 흠. 그들은 당신을 어디서 찾을 수 있는지 알게 될 것입니다. 음 흠.

그리고 그 이름의 의미까지 모두 기억해 보세요. 이제 그것은 제3자, 즉 그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 사람과 3인칭으로 대화하는 것이 아니라면 그 사람을 '나'라고 부르세요.

다시 한 번, 이 우주에서 누가 나이며 내 옆에는 아무도 없다고 말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이 모든 문제가 있습니다. 오직 여호와뿐이십니다. 그리고 당신은 그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당신은 내가 창조의 어떤 것에도 제약을 받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우상은 있지만 나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는 당신을 데리고 나갈 수 있고 당신은 그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너희는 내 은혜를 알게 될 것이다. 그러면 너는 나의 힘을 알게 될 것이다. 은혜롭지 않으면 강력한 존재가 있어도 소용이 없고, 강력하지 않으면 은혜로운 존재가 있어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여기서 '나는 있습니다'라고 말하면 누가 말하는지 알게 될 것입니다. 이제 7절부터 12절까지에는 확장된 이미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맨 위의 배경에서 그것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화약이 발명되기 전에는 성벽으로 둘러싸인 도시에 침입하는 것이 어려웠습니다. 주요 대안은 포위 공격이었습니다.

포위군은 도시를 포위하고 주민들이 굶어죽기를 바라면서 누구도 드나들지 못하도록 막았습니다. 내부에 있는 사람들에게 유일한 희망은 포위된 자들을 능가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한 일이 일어나는 방법 중 하나는 포위된 장군이 자신의 영토 내 다른 곳에서 어떤 사건으로 인해 군대를 철수하도록 강요당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52장 7절부터 12절까지에 묘사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좋은 소식을 가져오는 이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그리고 내가 좋은 소식을 가져오라고 말하듯이 헬라어 번역은 복음서나 전도자의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샬롬은 누가 출판하나요? 단? 질문이 있습니다. 포위된 도시에서 포위된 도시의 일부인 전투에서 주자가 오는 그림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그 먼 전투에서 그 도시의 동맹국이 승리했다는 메시지. 정확히 맞습니다. 정확히 맞습니다.

그래서 파수꾼은 포위된 성벽 위에 서서 '내가 사자를 본다'고 말합니다. 글쎄, 뭐가 보이나요? 글쎄요, 그는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있습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마라톤 이야기를 기억하시나요? 이것이 이 모든 일이 시작된 방법입니다. 마라톤에서 그리스군이 페르시아군과의 전투에서 승리했다는 소식을 아테네인들에게 알리기 위해 26마일을 달리다가 도시로 달려가 쓰러져 죽은 남자 .

물론 그 이유 중 하나는 그가 전날 52마일을 뛰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단지 56마일이나 26마일을 달렸다고 해서 죽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바로 여기의 그림입니다. 누가 구원을 선포하는가? 누가 시온에게 이르기를 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느니라

그는 전투에서 승리했습니다. 당신의 파수꾼의 소리, 그들이 소리를 높입니다. 그들은 함께 눈을 맞대고 기쁨의 노래를 부릅니다.

그들은 주님께서 시온으로 돌아오시는 것을 봅니다. 이제 나는 거기서 멈추고 싶다. 다시 돌아가서 40장 3절부터 5절까지 보겠습니다. 또 유명한 구절, 광야에 외치는 소리, 주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들리리로다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며 고르지 않은 곳이 평지가 되고 험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되리라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

이제 내 질문은, 구원이 왜 하나님의 오심이라는 관점에서 묘사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버림받았다고 느꼈습니다. 응, 또 뭐야? 좋아, 더 강한 힘이 당신을 도우러 옵니다. 그것은 그들에 대해 무엇을 시사합니까? 그들은 포위 공격을 받고 있으며 무력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든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 우리 자신의 힘, 우리 자신의 에너지, 우리 자신의 지성으로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의미입니다. 즉, 아무도 하나님을 모시기 위해 하늘에 올라갈 수 없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우리 세상에 오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오신다는 전체적인 개념은 그분이 우리의 무력함과 절망 가운데 오신다는 것입니다. 만일 그분이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영원히 무력함과 절망 가운데 남아 있을 것입니다. 산 위에서는 얼마나 아름다운가,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의 발은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질문을 합니다. 계속해서 여기서의 어조는 무엇입니까? 10, 11, 12절. 평온합니까? 반사적인가요? 명상적인가요? 노래하고 있어요. 네,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은 '아니오'입니다.

진정되지 않습니다. 반사적이지 않습니다. 관상적이지 않습니다.

그것은 설렘과 놀라움이다. 나는 마음의 눈으로 그를 볼 수 있습니다. 아니요, 아직 산을 넘지 않았습니다.

온 것은 메신저입니다. 그러나 메신저는 신뢰할 수 있고, 주님은 바로 그 뒤에 있을 것입니다. 우와. 신나는.

기병대가 오고 있어요. 예. 정확히.

정확히. 어렸을 때 나는 기병과 갈보리를 구별하는 데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렇다면 10절에서 주님은 무엇을 행하셨나요? 다시 한 번 기대합니다.

그는 팔을 드러냈다 . 그는 소매를 걷어붙였습니다. 저 27인치 팔뚝을 보세요.

우와. 이제 기억하세요. 제가 여기서 물어봤나요? 예. 50절 2절을 다시 보십시오. 여기서는 팔이 아니라 손이라는 말이 있지만 같은 뜻입니다.

내 손이 짧아서 배달할 수 없느냐? 내 팔이 말랐나요? 물론 대답은 '아니요'입니다. 괜찮은. 51장 5절을 보겠습니다. 나의 의가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나의 구원이 사라졌습니다. 내 팔이 백성을 심판할 것이다. 해안지대는 나에게 희망을 갖고 나의 팔을 기다린다.

하나님의 팔이 나타나기를 기다리는 것은 히브리 민족만이 아닙니다. 그것은 전 세계입니다. 그리고 물론 51.9입니다. 깨어나라 깨어나라 힘을 내라 주의 팔이여

좋아요.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했으니 그렇게 하세요. 그리고 그 내용이 52장 10절에 다시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모든 나라의 목전에서 그의 거룩한 팔을 나타내 셨으니 땅의 모든 끝이 보이리라. 다시 말하지만, 이 전체 부분을 통해 하나님께서 행하실 구원은 온 세상 앞에 있을 것입니다. 이는 이스라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전 세계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49~55장이 바벨론에서의 구원을 기술하고 있지 않다면 11절과 12절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그들의 죄. 자, 여기에 또 다른 흥미로운 측면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오셔야 하는데 그들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네, 그러면 11절에 있는 동사는 무엇인가요? 나가세요, 나가세요.

여기에 구원이 함께 작용하는 놀라운 시너지 효과가 있습니다. 우리는 토플리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야 하는데, 그분이 오시면 우리는 우리의 죄를 버리고 그분을 만나러 나가야 합니다.

구원은 언제나 양면적입니다. 그것은 하나님 편에서 시작되어야 하며, 그런 다음 우리가 손을 뻗어 그것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너를 구해줄게'라고 말씀하시는 단순히 수동적인 수용자가 아닙니다.

아니, 하나님은 내가 당신을 구원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을 받으러 올 사람이 있겠느냐? 육체적으로 자리에서 일어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받아야 하는 제단 부름에는 좋은 점이 있습니다. 좋아요, 그리고 12절은 정말 멋진 그림이군요.

여호와께서 너희의 선봉이 되시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너희의 후방이 되시리라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일어나 가십시오.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보다 먼저 가시고 하나님은 당신 뒤에 가신다는 것을 아십시오. 그리고 우리는 사막의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앞서 가셔서 인도하시고, 하나님은 쫓는 원수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뒤에 오십니다. 좋아요, 이제 52.13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내가 뒤에서 말했듯이, 이것은 장 구분이 영감되지 않았다는 성경의 가장 분명한 증거 중 하나입니다. 이사야서 53장은 52장 13절에서 시작됩니다 . 자, 왜 장 구분이 그 자리에 놓이게 되었는지, 제가 본 사람 중 누구도 좋은 설명을 하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누가 장 구분을 넣었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아는 것은 히브리어 성경, 구약성서의 시대에는 장 구분이 없는 사해 두루마리 사이에 큰 간격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최초의 완전한 히브리어 성경은 서기 1008년에 나왔고 장 구분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이 더 이상 두루마리를 사용하지 않고 책을 사용했기 때문에 처음으로 장 구분을 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두루마리에서 찾으려면 기본적으로 펼치기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그랬듯이 당신은 가고 싶은 곳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책의 경우, 어쨌든 누가 그랬든 여기서는 잘못한 것입니다. 52.13.14와 15가 이 더 큰 시의 일부라는 것이 매우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각각 3개의 절로 구성된 5개의 연이 있습니다.

매우 신중하게 설계되었습니다. Kinlaw 박사가 언젠가 나에게 말했듯이, 이 글을 쓴 사람은 토요일 아침에 봉투 뒷면에 그것을 쓰지 않았지요? 아니요, 아니요, 매우 세심하게 디자인되었습니다. 첫 번째 스탠자 13.14.15는 소개입니다.

다음 스탠자 53.1.2와 3은 그가 왜 멸시를 받았는지 알려줍니다. 4.5와 6은 그의 부담이 무엇인지 말해 줍니다. 7장, 8장, 9장에서는 그의 종노릇의 부당한 결과를 우리에게 말해준다.

10, 11, 12장은 그분의 종의 성격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따라서 이 첫 번째 스탠자 13.14.15는 엄청난 대조로 표시됩니다. 13절과 9절의 대조는 무엇입니까? 그리고 14절과 15절은요? 고난받는 종이며 부활하신 주님.

13 부활하신 주님이라는 말씀이신가요? 알았어, 그래. 승영과 놀라움. 자, 제가 배경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13절은 다양한 의미를 지닌 히브리어 단어 중 하나입니다.

서로 관련이 있지만 한 가지 의미는 현명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번역 중 일부는 그렇게 말할 것입니다. 그는 매우 현명하게 행동할 것입니다.

또 다른 의미는 번영한다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영어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재정적 측면만은 아니지만 말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를 세 번째 의미로 인도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여기서 올바른 의미는 바로 성공입니다. 당신의 일이 성공한다면, 당신은 성공할 것입니다.

당신이 현명하다면, 당신은 성공하는 방법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요점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종은 그가 보낸 일을 성공할 것입니다.

그는 성공할 것이다. 그는 무엇을 할 것인가? 고귀한. 그는 높이 들릴 것이다.

높고 들어 올려졌습니다. 이 두 단어는 책에 세 번 나옵니다. 첫 번째가 어디인지 아는 사람 있나요? 6장.

나는 주님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아 계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다른 부분은 57장에 있습니다. 14절, 실제로는 15절입니다.

일컬어 이르기를 건설하라, 건설하라, 길을 예비하라, 내 백성의 길에서 모든 장애물을 제거하라 하리라. 높고 들리는 이가 이같이 말하느니라. 즉, 세 번에 걸쳐 그 중 두 번은 하나님을 가리킨다.

그리고 여기 이게 있습니다. 내 종이 될 것이다. 그런데 이 종이 누구냐? 여기는 이스라엘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이사야가 아닙니다.

다른 사람이에요. 그리고 저는 종종 이 선지자들이 머리를 긁적이며 '내가 방금 뭐라고 말했습니까?'라고 말하는 모습을 상상합니다. 그는 높이 들릴 것입니다. 하지만 맙소사, 그것은 당신의 형용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예, 이사야, 나도 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냥 적어보세요. 베드로가 말했듯이, 선지자들은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보고 있는 것을 보고 싶어했습니다.

그러나 높은 곳에서 깊은 곳까지. 거기에 가기 전에 마지막 연인 12절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종을 위해 무엇을 하실 것입니까? 그는 그에게 보상을 할 것입니다.

전쟁에서 전리품을 누가 나누나요? 승리자, 승리자. 그래서 여기 첫 번째 절인 52, 13절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절인 53, 12절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종의 승리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읽을 수 없다면 거기에 M이 있습니다. 하인의 승리.

자, 왜 당신은 그 메모에서 시작하고 끝난다고 생각합니까? 시의 나머지 부분은 어떻습니까? 재앙이군요, 그렇죠? 그것은 비극이다. 그것은 공포입니다. 그러나 시작과 끝.

그리고 그것은 우리에게 빌립보서에 나오는 바울을 생각나게 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버리셨느니라. 그분은 종의 형체를 취하셨습니다.

그리고 종의 모습으로 나타나 사람이 되셨고,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느니라. 높은 곳에서 깊은 곳까지.

예수께서는 자신이 하신 일을 어떻게 하실 수 있었습니까? 어떻게 그가 영광의 예복을 벗고 별의 계단을 내려가 마구간으로 갈 수 있었겠습니까? 왜냐하면 그는 자신이 누구인지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이야기가 어떻게 끝났는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알면 그는 무엇이든 견딜 수 있습니다.

우리 중 일부는 그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 중 일부는 이야기가 어떻게 끝나는지에 대해 충분히 확신하지 못합니다. 당신이 누구인지 안다면, 수건만 입으면 상관없습니다.

아무것도 손실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자신이 누구인지 모른다면 하트(Hart), 샤프너(Schaffner), 마르크스(Marx)가 있어야 합니다. 아마도 이것은 내가 나 자신을 모른다는 뜻일 것이다.

어쨌든, 그것은 하트, 샤프너, 마르크스가 아닙니다. 나는 그것을 보장할 수 있다. 시작과 끝은 승리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즉시 당신에게 놀랐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모습은 인간의 모습을 초월할 정도로 손상되었고, 그분의 모습은 인류의 자녀들의 모습을 초월했습니다. 잠깐 기다려요.

잠깐 기다려요. 이것은 우리 구세주의 모습이 우리가 기대했던 모습이 아닙니다. 그 사람은 잘생겼을 텐데.

그 사람은 정말 잘생겼을 거에요. 손상되고 뒤틀리고 십자가에 못 박힌 얼굴이 아닙니다. 아니요.

그런데 15절에 문제가 있습니다. 여기에 영어 표준 버전이 있습니다. 그가 많은 나라에 뿌릴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왕들이 입을 다물게 될 것이다. 히브리 시에 관해 내가 당신에게 무엇을 말했습니까? 병행. 한 줄은 다른 줄과 동의어입니다.

글쎄, 입을 다물고 뿌리면 평행이 아닙니다. 또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이 동사 뿌리는 것이 나타나는 다른 모든 곳에서는 다른 것 위에 무언가를 뿌리는 것입니다.

따라서 문법의 논리에 따르면 그는 무언가에 국가를 뿌리고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여기서 얻은 것은 자동사 형태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아랍어에서 이 세 자음은 놀람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히브리어 성경에서 이 단어가 유일하게 나오는 것입니다. 하지만 제가 천국에 가서 하나님께서 그것이 뿌려진다고 말씀하시면 그렇다고 대답하겠습니다. 그러나 나는 그것이 놀랍다고 확신합니다 .

나는 그것이 병렬성이라고 생각한다. 그는 많은 나라를 놀라게 할 것이다. 그로 인해 왕들이 입을 다물게 될 것이다.

세상의 구원자가 저런 모습일 거라고 누가 생각이나 했을까요? 모두가 섬김의 향유를 원하지만, 그 일그러지고 손상된 얼굴을 참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직 그들에게 알려지지 않은 것을 그들은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듣지 못한 것을 이해할 것입니다.

이해한다는 표현이 정확히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들이 인식할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우리는 이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53장 1절입니다 . 1절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27인치 이두박근 이 아닙니다 .

이것은 약간 끈끈하고 가느다란 것입니다. 그는 톱이 아닙니다. 그는 어린 식물처럼, 마른 땅에 떨어진 뿌리처럼 주님 앞에서 자라났습니다.

알다시피, 당신은 그것이 자라는 것을 볼 수 없습니다. 오늘 아침에 치과의사와 통화 중이었습니다. 그가 말했지, 잔디는 어때? 내가 말하길, 아, 그가 말하길, 내가 어제 창밖을 내다보고 있었다고 하더군요.

나는 아내에게 그것이 성장하는 것을 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것이 자라는 것을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마른 땅에서 자라는 작은 가느다란 식물일 뿐입니다.

며칠이 지나도 그 일은 1인치도 자라지 않았습니다. 그에게는 우리가 볼 만한 고운 모양도 없고 위엄도 없었더라. 우리가 그에게 바랄 만한 아름다움은 없습니다.

저는 예수님이 못생겼다고 생각해요. 나는 그가 솔로몬의 그리스도의 머리와 닮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아이디어는 어디서 얻나요? 글쎄요, 그분은 우리의 슬픔과 슬픔을 짊어지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 중 일부에게는 하루의 첫 번째 슬픔이 거울을 보는 것입니다. 전에도 말씀드린 것 같지만, 약 114년 전 제가 어렸을 때 우리집에는 텔레비전이 없었습니다. 일요일 저녁 530시에 라디오에서 사상 최고의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복음 이야기의 드라마화. 그리고 저는 특히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를 아주 아주 잘 기억합니다. 아버지는 아들과 아내에게 작별 인사를 한 뒤 집을 떠나 떠났다.

그러나 당신은 예수님의 부분을 읽고 있는 사람을 알아보는 데 전혀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는 정말 멋진 베이스 목소리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말할 때마다 배경에서 오르간이 연주되었습니다.

글쎄요, 제가 여기 서서 '나는 신이고 오르간을 연주한다'고 말한다면 여러분은 약간 불안해할 것입니다. 그래 맞아. 이제 우리는 승리의 퍼레이드를 이끌 의상 드럼 메이저를 원했습니다.

아니, 아니, 그 사람에 대해서는 그의 선함 외에는 아무 것도 없습니다. 소름 끼치고 무섭고 정죄하는 선함. 42장, 49장, 50장의 종에 대한 설명을 되돌아보면 그가 거부한 것에 대한 강조가 점점 더 강조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절정에 이르게 되면 거절뿐만 아니라 고통도 겪게 됩니다. 그리고 11장으로 돌아가 보면 메시아의 그림은 이새의 그루터기에서 자라나는 싹입니다. 그는 자기 눈으로 판단하지 않을 것이다.

그는 평범한 왕처럼 행동하지 않을 것입니다. 아니요, 이 사람은 어린 시절부터 통치할 것입니다. 왕권의 모든 장식물은 거기에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에게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우리는 그를 경멸했습니다. 히브리어로 멸시한다는 것은 생각하지 않는다는 뜻, 무가치하다고 생각한다는 뜻입니다. 그 사람은 내 시간을 들일 가치가 없어

이 친구한테는 신경 쓸 필요 없어. 그는 분명히 통치자가 될 자격이 없습니다. 말 그대로 질병과 고통을 안고 있는 사람.

그리고 제 생각에 요점은 예수님이 항상 아팠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그런 종류의 언어를 사용하여 요점을 강조하기 위해 그분은 강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는 강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했나요 ? 3절 후반부입니다.

우리는 얼굴을 숨겼습니다 . 우리는 그를 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슬프거나 우울하거나 고통받는 사람들과 함께 있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또한 투명하게 좋은 사람들과 함께 있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의 각도는 어떻습니까? 아시다시피, 당신은 턱으로 이끌지 않습니다. 당신은 자신을 조금 보호합니다.

당신은 무언가를 예비로 유지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 부끄러워요. 당신이 보는 것은 당신이 얻는 것입니다.

그는 멸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들이 왜 계속 이런 일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그를 존경하지 않았습니다. 글쎄, 나는 귀한 조개가 무엇인지 알고 있지만, 우리는 그에게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 의미입니다. 그 사람은 우리의 관심을 받을 자격이 없었어요. 우리에게는 다른 할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에 대해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밴드박스에서 뛰쳐나와 '짜잔'이라고 말하지는 않을 겁니다. 나는 그가 유대인을 묘사한 방식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항상 최악의 방법이었습니다. 그들의 특성은 매우 추악합니다. 큰 코, 긴 곱슬머리.

그래서 나는 그 사람이 바로 그러한 특성 중 일부를 가지고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정확하게. 그 사람들은 바로 그랬습니다.

정확하게. 정확하게.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그에게는 우리가 탐낼 만큼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었습니다.

내 말은, 그 사람은 자기 이름에 걸맞는 정장이 딱 한 벌밖에 없었거든요. 좌석에서 반짝였어야 했는데. 만약 오늘이었다면 그는 12명의 깡패들과 함께 낡은 스쿨버스를 타고 돌아다닐 것입니다.

예. 그리고 이것이 세상의 구세주입니까? 세 번째 스탠자. 이제 내가 읽는 동안 들어보세요.

실로 그는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느니라. 그러나 우리는 그를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받는다고 생각하였노라. 그러나 그는 우리의 범법 때문에 상처를 입었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죄악 때문에 짓밟히셨습니다. 그에게는 우리에게 건강을 가져다주는 징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채찍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모두 양처럼 길을 잃었습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을 자신의 길로 돌렸습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습니다.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것 같나요? 이제 특히 4절을 보십시오. 이 사람은 왜 폭행을 당한 걸까요? 아니요, 4절 후반부에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응, 그 사람이 그 일을 하려고 했어. 당신은 조금 똑똑해야합니다. 내 말은, 턱으로 리드하면 턱에 맞을 것이라는 뜻입니다.

예, Mel이 말했듯이 그것은 우리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를 보고 그가 스스로 자초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그에게 다가오고 있었다.

그리고 다시 그 금요일 아침에 그 군중 속에 있던 사람들을 상상할 수 있습니다. 글쎄요, 내 생각엔 그 사람은 십자가형을 받을 자격이 없는 것 같아요. 하지만 좀 똑똑해야 해요.

내 말은, 그 사람이 정말 스스로 자초한 거라구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신다 는 이 모든 말은 , 당신이 그런 말을 하고 돌아다니면 사람들이 당신을 죽일 것이라는 것입니다. 미안해요. 안타깝네요.

그는 좋은 사람이에요. 그러나 당신도 알다시피 그분은 우리의 고통과 질병, 우리의 범법과 죄악을 담당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내가 배경에서 말했듯이, 그 사람은 우리에게 건강을 가져다 준 구타를 당했습니다.

평화는 현 시점에서 매우 불행한 번역이다. 샬롬은 웰빙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루살렘 시내의 인사는 마 샬롬카 입니다 .

당신의 샬롬은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그건, 잘 지내세요? 당신의 웰빙 상태는 어떻습니까? 그것이 바로 여기의 요점입니다. 그 사람은 구타당했고, 우리는 건강해졌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평행법에서 그것을 분명히 볼 수 있습니다.

그분의 채찍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습니다. 저는 특히 6절을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고등학교 때 아버지와 함께 양을 키웠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양이 멍청하다고 말합니다.

나는 그것에 대해 잘 모르겠습니다. 내 생각엔 그들은 주로 한마음인 것 같아요. 아, 이 풀밭 좀 보세요.

음, 맛있었어요. 아, 이것 좀 보세요. 아, 여기 이것 좀 보세요.

아, 그리고 이거, 이거, 이거. 그리고 보세요, 보세요, 보세요, 보세요. 내가 어디 있지? 내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지? 우리는 모두 양처럼 길을 잃었습니다.

그게 우리야. 바보가 아니고 그냥 한마음이에요. 나는 내가 원할 때 내가 원하는 것을 원한다.

그리고 성경은 그것을 죄악이라고 부릅니다. 불행하게도 그것을 번역할 수 있는 좋은 현대어가 없습니다. 그것은 뒤틀림의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것이 그것을 얻는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안에 뭔가 뒤틀린 게 있어요. 그것은 나에게 유리하다고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볼 수 없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그에게 맡기셨습니다. 이제 그가 겪었던 부당한 일에 대해 말하는 다음 연의 첫 구절을 보십시오. 그는 학대를 당하고 환난을 당하면서도 자기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니 마치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양 같고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 같으니라.

예수님은 우리의 양 같은 모습을 스스로 취하셨습니다. 우리 안에는 자기 봉사가 결정되어 있습니다. 그에게는 온화한 무방비 상태가 있습니다.

우리는 돈이 있었는데 그는 못됐어요. 그래서 양털 깎는 사람이 올 때, 양털 깎는 사람이 그 책임을 떠맡아야 할 때 곁에 있고 싶었습니다. 나는 이것이 재미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양털깎는 사람은 사슴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벅은 그를 쳐다보았다. 그리고 뱀처럼 빠르게, 털 깎는 사람은 손을 뻗어 한쪽 뒷다리를 잡았고, 그 사슴은 파랑새처럼 온화하게 발을 공중에 뻗은 채 털 깎는 사람의 가슴에 누워 있었습니다.

나는 깜짝 놀랐다. 양털 깎는 자 앞에서 침묵하는 양은 자기 길을 포기했을 뿐만 아니라 자기 길에 대한 권리도 포기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로부터 무엇을 얻었습니까 ? 그는 억압과 심판을 받고 끌려갔습니다.

그 세대는 그가 산 자의 땅에서 끊어졌다는 사실을 누가 생각이나 했느냐? 그 당시에는 자녀가 없이 죽는 것은 한 번도 살지 못한 것과 같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지난 6개월 동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향하고 계실 것이라고 상상할 수 있습니다. 그는 이 멍청이들에게 십자가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안돼, 피터, 너는 총리가 될 수 없을 거야'라고 말하고 있어요. 나는 총리가 될 것이다. 당신도 위생부 장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에 사탄이 앉아 있습니다. 예수님, 당신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당신을 죽일 것입니다.

당신은 그들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6개월이 지나면 마치 한 번도 살지 않은 것처럼 될 것입니다. 지금 보세요, 20, 30명의 멋지고 젊은 여성들이 있습니다.

그들 중 누구든지 즉시 당신과 결혼할 것입니다. 그리고 작은 가족을 키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지금까지 우리에게 가르쳐 왔던 이 모든 놀라운 것들을 자녀들에게 가르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알게 되어 정말 기뻐요. 그는 닥쳐라고 말했다. 그 세대에 누가 그가 산 자의 땅에서 끊어지고 내 백성의 범법으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했다고 생각하였느냐? 그리고 그의 무덤은 악인과 함께, 그의 죽음으로 부자와 함께 만들어졌습니다.

설상가상으로 그는 자신이 사랑하는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 묻힐 수도 없었습니다. 그는 악한 부자와 함께 묻혀야 했습니다. 그는 폭력을 행사하지 않았지만.

그의 입에는 거짓이 없었습니다. 성경은 부에 대해 매우 양면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재산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입니다.

감사하고 세상을 축복하는 데 사용하십시오. 그러나 대부분의 부자들은 폭력과 속임수를 통해 그것을 얻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나는 내 권리를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 대가로 무엇을 얻었습니까? 억압, 심판, 자녀 없음, 부자들과 함께 묻혔습니다. 그리고 왜? 내 생각에 10절은 성경에서 최악의 구절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문자 그대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그를 멸하시는 것을 기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는 그를 슬픔에 빠뜨렸습니다. 이제 나에게는 두 명의 아들이 있습니다.

그 중 몇 가지가있었습니다. 몇 번이나 죽이고 싶었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멸하시는 것을 기뻐하셨습니다. 이것은 어떤 신인가? 나에게 가장 좋은 예는 수년 전에 들었던 것입니다.

그 남자는 브릿지 입찰자였습니다. 그는 강 위에 거대한 승강교를 운영했습니다. 철교였습니다.

강에 교통량이 많았기 때문에 평소에는 뜨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차가 올 예정이었을 때, 기차는 내려졌고 기차는 건너갔습니다. 다시 들어올려졌습니다.

어느 날 교량 관리인은 그의 어린 아들을 데리고 일하러 왔습니다. 오후 3시, 멀리서 휘파람 소리가 들렸다. 아, 그거 오후 여객열차구나.

기계와 장비를 던졌습니다. 그리고 수백 톤의 강철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그의 아들이 소리쳤어요, 아빠! 그리고 그는 아들의 코트 소매가 그 톱니바퀴에 걸려 있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 몸을 돌렸습니다.

그는 순간적으로 결정을 내려야 했습니다. 기계의 기어를 풀고 아들의 생명을 구하고, 기차가 열린 다리를 뚫고 달려가 300명의 사람들을 죽음으로 몰아넣거나, 그의 귀를 막고 기계를 기어 상태로 두는 것을 지켜보세요. 당신이 그 기차를 탔다면, 내 아들이었다면 수영하러 갔을 까봐 두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귀를 닫으셨습니다. 그것이 그 사람을 기쁘게 할 수 있는 이유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그 대가가 무엇을 낳을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그 구절의 나머지 부분에서 그것을 즉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재미있다. 신학이 방해가 되기 때문에 번역자들은 이 문제에 대해 온통 방심하고 있습니다.

본문은 그의 영혼을 속죄제물로 삼을 때라고 말합니다. 글쎄요, 좋은 개혁신학에서는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우리 죄를 위해 그리스도를 제물로 바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셔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ESV입니다. 그의 영혼이 속죄제를 드릴 때.

본문은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아시다시피, 그 본문은 우리 신학과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옳을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당신이 하나님을 가리키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의 영혼을 죄를 위한 제물로 삼으시면 그들은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글쎄요, 그게 아닙니다. 그러나 이 구절에서 하나님을 언급하는 경우는 그 때뿐일 것입니다.

나는 이사야가 이야기하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그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부서지고 피 흘리는 몸을 손에 안고 우리에게 오셔서 말씀하십니다. 여기, 얘야, 너를 대신하여 나를 아버지께 바쳐라. 그의 생명을 속죄제물로 삼으시면 그가 그의 씨를 보게 되리이다.

아이들이 없나요? 그는 기꺼이 자신의 목숨을 바쳤기 때문에 전 세계에 수백만 명의 자녀를 두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의 날을 연장하여 32세에 끊어질 것입니까? 아니요, 그는 영원히 살아요. 그의 영혼의 번민과 주님의 뜻에서 문자 그대로 주님의 기쁨이 그의 손에 성공할 것입니다.

예. 예. 우리가 그를 우리 죄를 위한 제물로 바친다면 그의 사명은 성공할 것입니다.

제물이 필요하지 않다고 말하면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매우 감사합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헛된 일이었습니다.

그는 자기 영혼의 고통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다. 우리 셋째 피터가 태어났을 때 나는 분만실에 있는 특권을 누렸습니다. 나는 특권을 말한다.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힘들어하고 괴로워하는 모습을 보는 것이 얼마나 큰 특권인지 모릅니다 . 카렌은 누군가가 고통 없는 출산을 말한다면 나는 그들을 처형해도 좋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당신이 말할 수 있는 것은 내가 당신을 때려눕힐 것이라는 것뿐이다.

푸시. 그리고 피터가 태어났을 때, 그는 못생겼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는 붉고, 주름지고, 끈적끈적하고, 마치 다툼처럼 울부짖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를 카렌의 가슴에 안겨주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구름 뒤에서 태양이 나오는 것을 보는 것과 같았습니다. 그는 자기 영혼의 고통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다.

네, 아버지. 그럴만한 가치가 있었어요. 그것은 그것의 가치가 있었다. 머리 지식이 아닌 그의 지식으로, 아니, 아니.

종이 아버지 와의 관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을 의롭다고 여기게 하겠느냐? 그분께서는 그들의 죄악을 담당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그에게 많은 사람에게 한 몫을 나누어 주겠다. 그가 약탈한 자를 강한 자와 나누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쏟아 죽게 하고 범죄자와 함께 계수함을 입었음이라.

그러나 그는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고 범죄자들을 위하여 중재하였느니라. 그래서 49화, 50화, 51화, 52화에서는 기대감이 증폭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적에게 포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잊으셨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우리를 잊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저 산 너머에서 그가 우리를 위해 싸우고 있다고 감히 믿습니다.

그리고 네, 여기 주자가 옵니다. 오 와우.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무엇? 무엇? 이것은 인크레더블 헐크가 아닙니다. 여러분 중 일부는 내가 이것을 90파운드짜리 약자라고 말할 때 무슨 말을 하는지 알 만큼 나이가 들었습니다. Charles Atlas 광고를 기억하시나요? 아, 맙소사.

이걸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할 건가요? 그리고 하나님은 믿으라고 하십니다. 이것은 나의 강력한 팔입니다. 예전에 7장에서 12장에 관해 이야기할 때 그런 식으로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약함. 그의 약점은 인간의 어떤 강점보다 더 큽니다. 그분의 능력은 세상이 만들어 낼 수 있는 모든 악을 자신 안으로 받아들이고 사랑을 돌려주는 그분의 능력에 있습니다.

친구 여러분, 그것이 바로 힘입니다.

기도하자. 오, 주 예수님, 우리가 어떻게 충분히 감사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하지만 우리는 당신의 감사를 원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당신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나는 당신이 나를 대신하여 아버지 께 나를 바치기를 원합니다 .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합니다, 주님. 우리는 다시 한 번 감사 인사를 전합니다.

우리를 위해 견뎌주신 모든 것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기대했던 것과는 다른 형태로 지구에 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위하여 당신은 왕의 예복을 벗어 놓으셨습니다. 당신은 우리 중 하나가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 주님, 당신의 발자취를 따라 걷는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가르쳐 주십시오. 우리 왕의 예복을 벗어 놓기 위해. 우리의 권리를 제쳐두려고요.

우리 자신을 방어해야 할 필요성을 제쳐두는 것입니다. 주님, 우리가 예수님처럼 우리의 종 됨의 결과를 당신 손에 맡기고 당신께서 원하시는 대로 행하실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그리고 우리는 그것이 좋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당신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